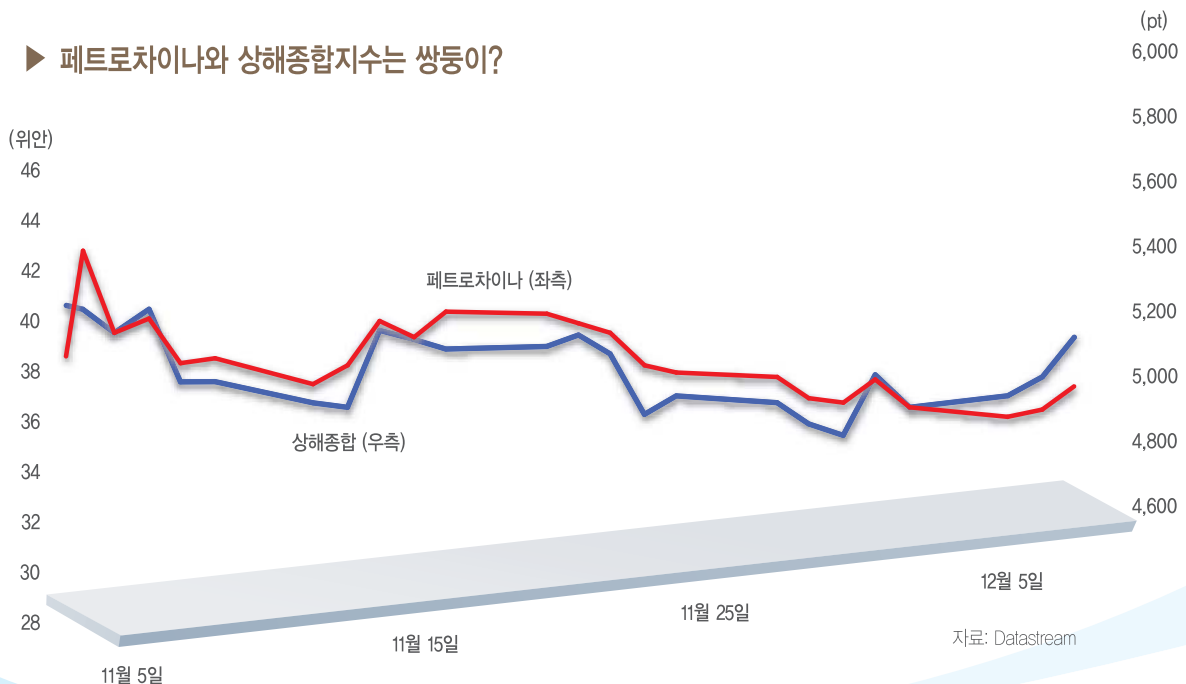


# 2008년 중국 증시전망

## 이것만은 살펴보자: 1. 자본수출 2. 페트로 차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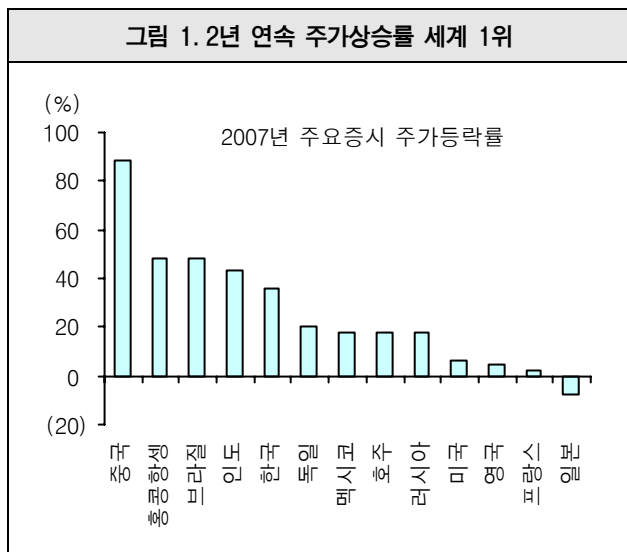
- 2007년의 중국 증시는 ‘열정이 휩쓸고 간 후 찾아온 냉정의 시기’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2006년 130% 상승에 이어 2007년에도 87%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주도했고 홍콩증시를 포함하면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증시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 경제발전 속도를 증가하는 증시과열은 결국 오버페이스라는 결과를 낳았고 엄한 ‘감독’ 인 정부는 여러가지 처방을 내리면서 ‘선수’ 의 체력안배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통화정책, 은행창구지도 및 해외투자 유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 증시는 체력보강의 시기를 맞고 있다.
- 2008년은 중국이 ‘상품수출’ 보다 ‘자본수출’ 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 아시아 증시, 특히 홍콩증시는 중국의 後光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 증시의 상승은 페트로 차이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규상장된 이 ‘거인’ 이 상해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3%. 거대 은행과 더불어 이 에너지 거인의 홍보 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 ▶ 페트로차이나와 상해종합지수는 쌍둥이?



## 1-1. 중국증시, 올해의 기록들

21세기 들어 올해만큼 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중심으로 부상한 적은 없었다.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 1위로 부상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기둔화를 방어할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시로 눈을 돌리면 2007년은 중국 증시의 열정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2006년에 130%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12월 6일 현재 87% 상승을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이번이 없는 한 순위표 최상단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참고: 12월 7일 현재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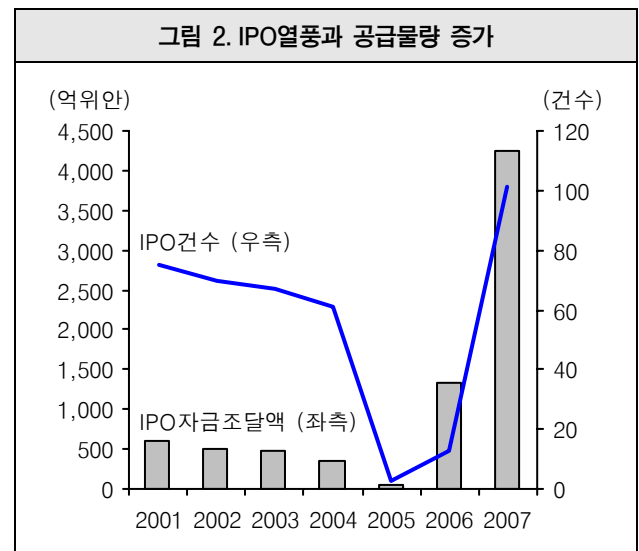
치솟는 주가지수는 시가총액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중국 증시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홍콩증시를 포함할 경우 시가총액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도약하였고 개별 기업들의 약진도 두드러져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개를 차지하는 이변(?)을 낳고 있다 (표 1).

표 1.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기업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 (백만 달러)	1년 상승률 (%)
1	페트로차이나	729,734	53.5
2	엑슨모빌	481,454	12.9
3	중국이동통신	372,060	124.3
4	GE	366,350	2.8
5	공상은행	350,908	118
6	가스프롬	317,316	5
7	MS	306,577	6.6
8	RDS	259,762	12.5
9	건설은행	237,007	8.4
10	중국석화	236,127	81.8

참고: 12월 6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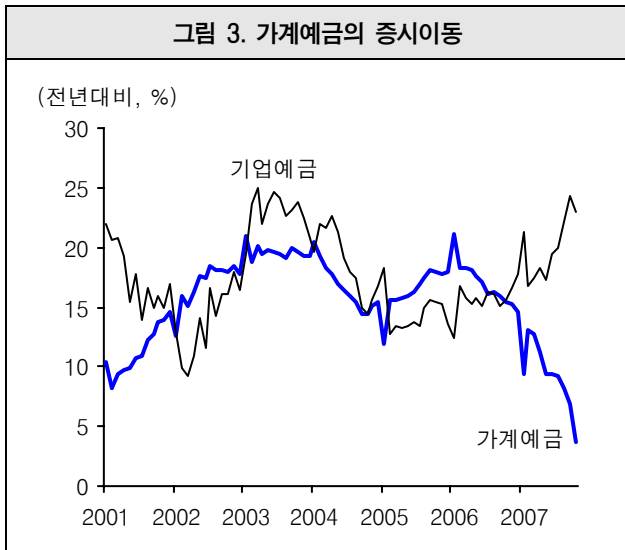
IPO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데 중국과 홍콩증시의 IPO규모는 거대국유기업들의 상장에 힘입어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들어와 유동성 장세로 이어졌다. 하지만 금세기 초 나스닥 급등 당시의 IPO열풍을 회고해 보면 IPO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커질수록 공급물량의 증가로 인해 시장의 에너지는 소진되는 측면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림 2).



자료: World-exchanges.com, 신은만증권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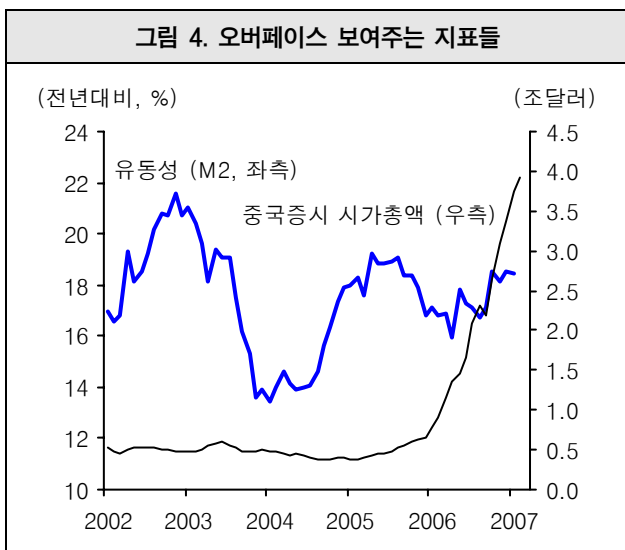
1-2. 오버페이스와 감독의 처방

증시상승을 이끈 주역은 개인 투자자의 증시자금 유입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데 주식거래 계좌수가 5월 말 사상 처음으로 1억 계좌를 돌파했으며 주식형 펀드도 1년간 6배 증가하며 최근 3조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예금 증가율의 감소에서 보듯이 자금이 빠르게 은행에서 증시로 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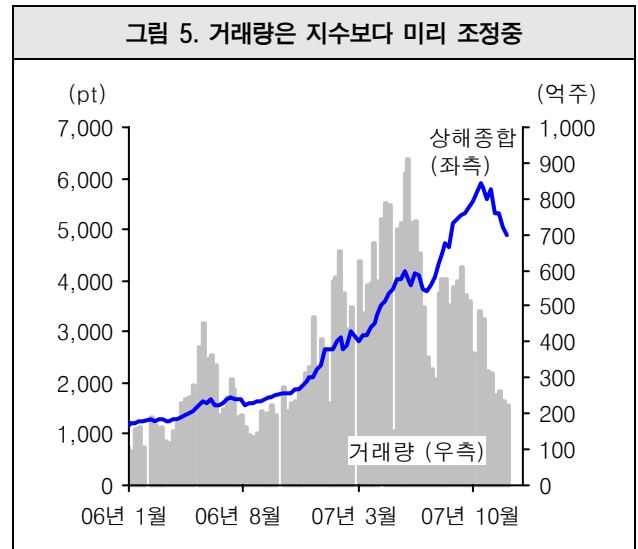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증시의 예상치 못한 빠른 성장은 결국 중국 증시를 오버페이스 국면에 진입하게 만들었다. 경제성장률은 11%대임에 반해 증시 성장 지표들인 PER, 유동성(M2), 시가총액 등의 성장률은 이를 훨씬 초과하며 균형적인 증시발전에 부담을 지웠다 (그림 4).



자료: Bloomberg, Datastream

이는 기술적 지표인 거래량의 흐름에서도 읽히는데 오버페이스 국면에 진입한 증시에 ‘감독’인 정부의 처방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주가지수가 고점에 도달하기 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열정’에서 ‘냉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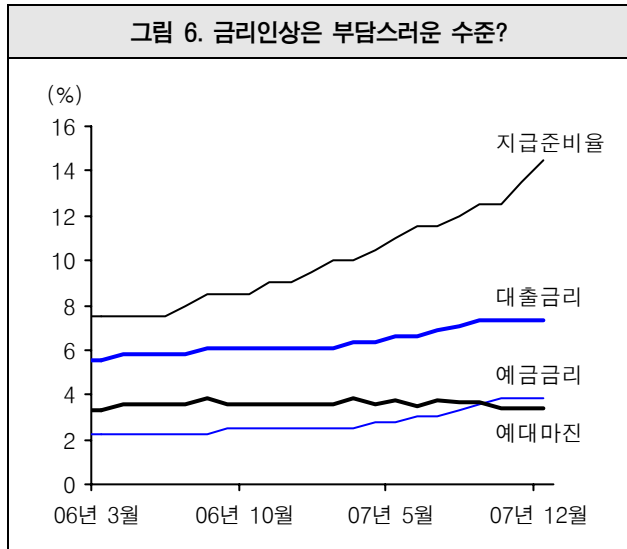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정부의 처방은 오버 페이스 후의 급격한 체력저하 방지와 점진적인 증시체력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처방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완만한 수준의 조정을 유도하면서 건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외에 외국인으로 대표되는 증시의 Key Factor가 없는 점이 이러한 처방효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패쇄적 증시의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처방 프로그램은 대개 세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소프트한 통화정책, 둘째는 은행 창구지도, 마지막으로 유동성의 해외유도이다.

우선적으로 소프트한 통화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금리인상 보다는 지급준비율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증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출금리가 이미 8%에 육박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욕구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어서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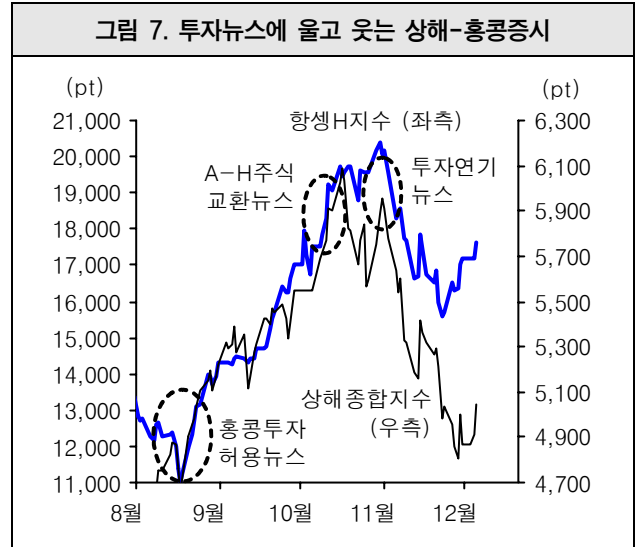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은행창구 지도는 지급준비율의 유동성 흡수효과를 보완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투자심리에 보다 영향력이 크다. 지난 2004년 차이나 쇼크도 직접적인 발단이 대출규제라는 은행창구 지도였음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 정부는 은행들에게 연말까지 신규대출규모를 10월말 수준으로 맞출 것을 지시했는데 당국이 대출총량 제한을 연장할 경우 신규대출 증가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13%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책은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는데 12월 5일 끝난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대출규모 및 신용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신중’에서 ‘긴축’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은행창구 지도는 증시대책보다는 인플레이션 대책에 보다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의 해외유출 유도이다. 지난 8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는 본토 개인투자자의 홍콩증시 투자허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본토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홍콩 증시가 랠리를 펼쳤다. 결과적으로 중국 증시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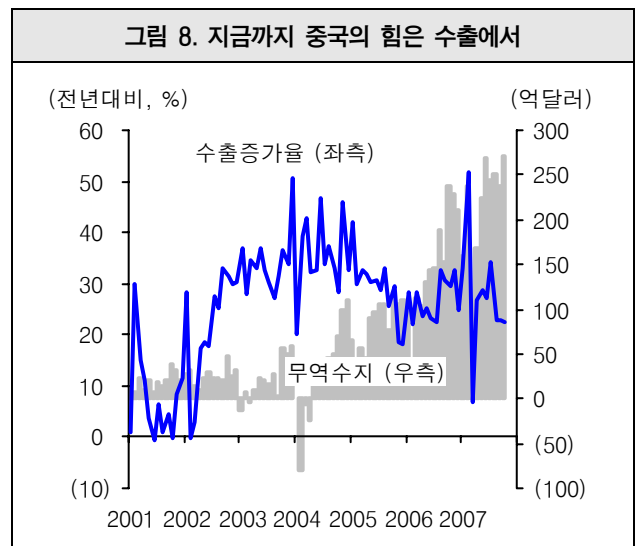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Datastream

2-1. 2008년 핵심키워드 첫번째: 자본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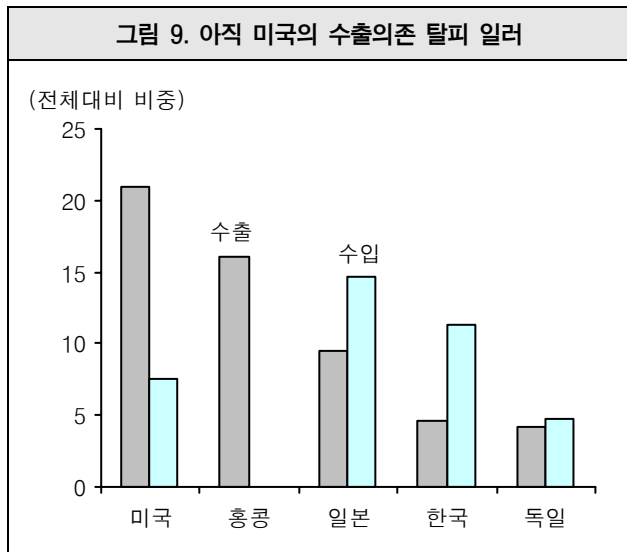
21세기 들어 글로벌 상품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Made in China’의 시장체패를 들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제품과 상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중국제품 없는 생활을 시도한 어느 미국인은 결국 한달도 못 버티고 포기했다는 일화는 중국제품의 일상경제 침투력과 영향력을 대변하고 있다.

20%가 넘는 수출증가율이 5년동안 이어지며 중국의 무역수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7년에는 무역흑자가 3천 억불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외환보유고와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증시상승의 디딤돌 역할을 해 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8).



자료: Datastream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 정도에 그칠 것이 예상되는 미국의 성장침체가 유력한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기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1%로 적지 않은데다가 동남아 등의 수출다변화 역시 마지막 도착지가 미국임을 감안하면 중국의 수출과 무역흑자 규모는 일정부분 감소할 것임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그림 9).



참고: 2006년 기준  
자료: EIU

따라서 2008년에는 강력한 무역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 기조에 변화가 감지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상품 수출을 기반으로 한 무역대국 이미지에서 탈피해 국가와 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본수출 강국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중국식 성장모델에서 80년대 후반 일본식 자본수출 모델을 수정해 성장엔진을 다변화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일본의 자본수출이 민간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변형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자본수출을 주도하는 주체는 바로 국부펀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심의 국부펀드가 자본수출 구도를 주도하는 가운데 금융 및 원자재 기업중심의 M&A투자, 개인투자자의 해외펀드 투자(QDII) 역시 활성화되면서 2008년의 국제 금융시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한 중동의 국부펀드와 더불어 1조 4천 억불이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하는 중국의 국부펀드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증시가 선전하게 할 중요한 지지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천 억불의 자본금으로 세워진 중국투자공사(CIC)는 이미 30억불을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에 투자했고 유수의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펀드가 속속 조성되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10 억불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산시성과 광둥성은 에너지 펀드를 설립했다. 쓰촨성과 텐진시도 이 대열에 가세했다.

기업부분의 해외투자는 주로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원자재 확보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의 자본수출은 지난 11월말 아부다비 투자청(ADIA)의 씨티은행 투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촉발한 글로벌 신용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페트로차이나(중국 석유)는 원유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 등으로 진출하고 있고 철강업체인 바오산 철강은 2천억불 규모의 호주 원자재 기업인 리오턴토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국의 자본수출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들의 해외투자 열풍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들의 해외 M&A 원동력도 실은 개인투자자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 IPO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은 기업에게 두둑한 실탄을 안겨준 셈이다. 홍콩 투자허용 방안이 나오며 물꼬가 트인 해외투자는 QDII(적격 해외투자금융기관)펀드들이 나오자마자 발매 당일 모집이 중단될 정도로 그 열풍이 대단하다 (표 2).

표 2. 중국의 자본수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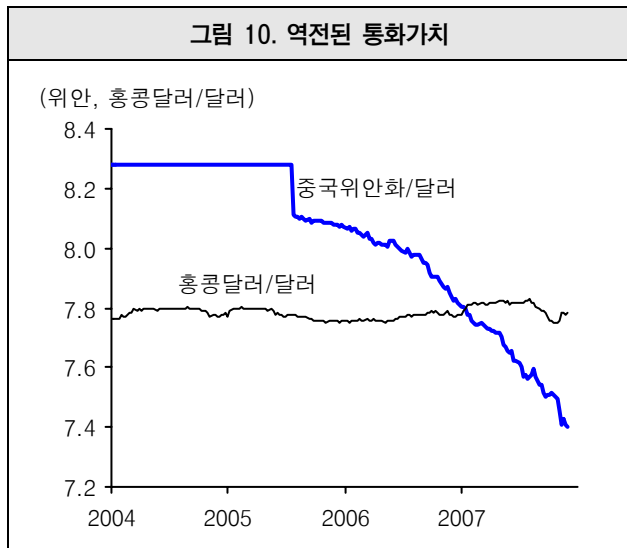
구분	투자주체	투자대행	주요사례
국부펀드	중앙정부	CIC (투자공사)	블랙스톤 30억불 투자
	지방정부	자체투자기관	상해, 산시, 광둥, 쓰촨, 텐진 등 준비
기업부분	대형은행		공상, 건설, 시탁은행 등 투자중
	국유기업		에너지, 철강업이 두드러짐
개인부분	직접투자	홍콩 (예정)	홍콩증시 계좌개설 열풍
	간접투자	QDII (적격투자기관)	4개 해외투자펀드 모집당일 마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와 증시의 내부동력을 자본수출과 해외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분명 증시의 모멘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외투자가 중국 증시보다는 홍콩으로 대표되는 주변 아시아 증시의 유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혜택국가 는 후광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는 점이다. 홍콩과 더불어 편 드의 투자대상국인 한국과 일본 증시도 혜택권 안에 있다.

2-2. 홍콩, 중국 後光(후광)효과의 1등 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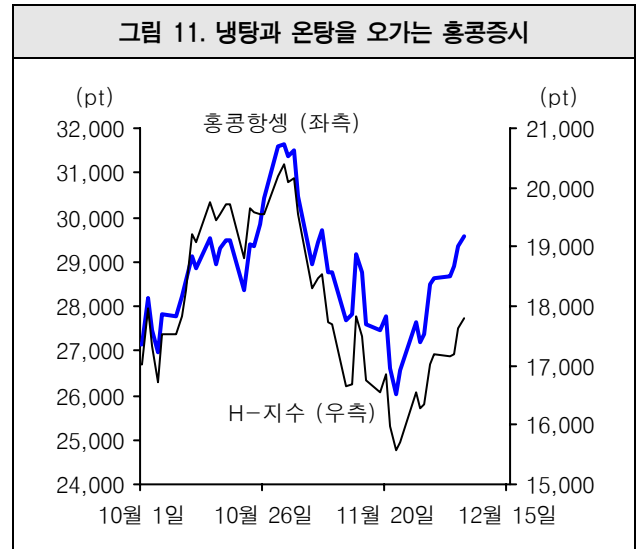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 흐름만 보면 홍콩을 선진증시로 분류하기 민망할 정도로 강력한 시세분출과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일약 선진증시 주가상승률 1위로 떠올랐다. 배후에 중국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앞서 언급한 중국 본토투자자의 홍콩투자 허용방안이 나오자마자 유동성 수혜가 예상되는 홍콩증시로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 들었다. 실제로 본토인의 홍콩여행 첫 순서는 증권계좌 개설이라고 할 정도로 본토의 홍콩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여기에 달러약세와 홍콩의 페그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높은 투자매력을 안겨 주었는데 향후 홍콩이 페그제를 완화할 시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차익 가능성 때문이다 (그림 10).



자료: Datastream

위의 두 가지 호재로 급등하던 홍콩증시는 11월 들어 연이은 펀치를 맞으며 휘청거렸다. 일종의 부메랑 효과라 할 수 있는데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홍콩 투자허용 연기기사 발언과 글로벌 신용위기의 재발은 투자심리를 극도로 훼손시키며 11월 한 달 동안恒生지수는 17%, 恒生 H지수는 20%에 가까운 급락을 맞은 후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림 11).



자료: Datastream

홍콩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을 맞고 있지만 2008년에도 기대 섞인 눈으로 전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본토 투자자의 홍콩증시 투자허용이 내년 안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원자바오 총리의 연기 발언 직전 중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1년간 홍콩증시에 2천 억불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했고, 연기 발언 이후에도 해외 증권사들은 전망자료를 통해 600~1000억 불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QDII펀드의 활성화도 긍정적이는데 QDII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국이 홍콩이기 때문이다. QDII의 규모는 올해 10월말 기준 470억불로 추정되며 이 중 20%정도가 홍콩에 투자되고 있다. 최근 평안보험이 해외투자한도를 15%까지 허용 받으며 QDII 인증을 받았는데 이전 보험사의 투자한도가 5%였음을 감안하면 이 역시 긍정적 뉴스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올해도 미국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달러약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페그제를 실시하는 홍콩 통화의 매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상되는 중국 위안화와 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홍콩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 미국, 중국에 이어 홍콩도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1. 2008년 핵심 키워드 두 번째: 페트로차이나

페트로차이나(중국석유)는 Upstream분야(탐사 및 개발)부터 Downstream분야(운송 및 판매)를 모두 취급하는 메이저 에너지 회사이다. 정부가 독점하는 국영기업으로써 2006년 2000억 위안의 매출액과 142억 위안의 당기 순이익을 거둔 중국 최대기업이다. 항셱 H증시에 상장된 이 기업은 연초대비 53%의 주가상승을 기록하며 항셱 H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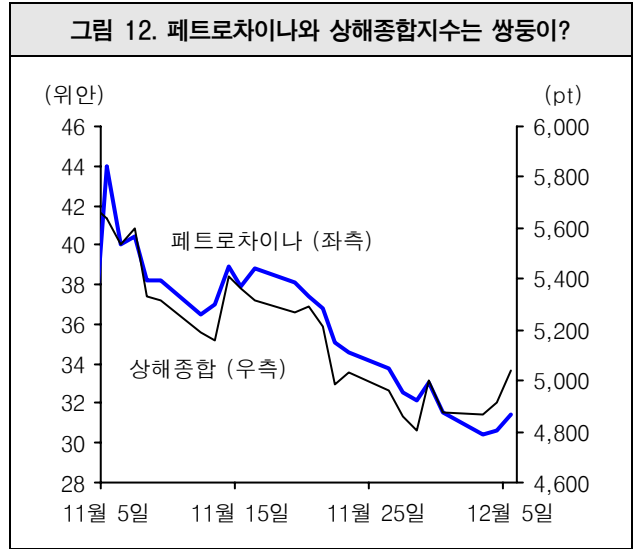
이 거대 국유기업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 동안 페트로차이나는 항셱 H증시에서만 거래되었는데 2007년 11월, 본토의 상해증시에 상장되면서 증시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장일 첫날 세 배가 급등하면서 동종업계의 거인 엑슨 모빌(Exxon Mobil)을 밀어내고 일약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도약했고 상해종합지수에 편입되면서 지수구성의 23%를 차지하며 지수등락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되었다(표 3).

표 3. 상해종합지수 구성비

기업명	지수비중 (%)	현재가 (위안)
중국석유 (페트로차이나)	22.772	31.44
중국 공상은행	8.333	8.39
중국석유화학 (시노펙)	6.149	22.22
중국생명보험	4.901	59.47
중국은행 (BOC)	4.715	6.7
선화에너지	4.291	65.75
중국 평안보험	3.461	119.06
중국 초상은행	1.969	41.33
중국 교통은행	1.577	15.37
중국 시틱은행	1.56	10.29

참고: 12월 7일 현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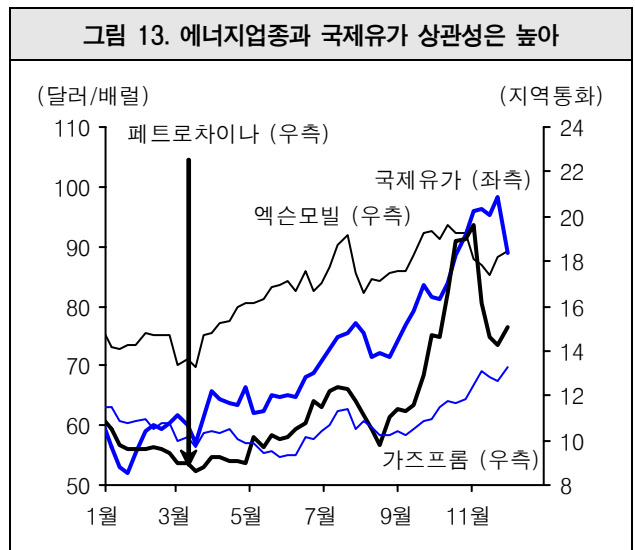
상해증시는 11월부터 조정흐름이 완연한데 지수흐름을 보면 페트로차이나의 등락과 지수등락이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페트로차이나의 지수 영향력으로 인해 지수 자체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림 12).



자료: Datastream

문제는 이런 현상이 2008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유사종목인 시노펙(중국석유화학)을 더하면 에너지 대표기업의 지수구성비는 30%에 달해 기존 대형은행과 함께 지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중국 증시의 운명은 에너지와 은행업종 대표주의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페트로차이나의 내년 전망은 기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페트로차이나 등의 에너지 기업은 국제유가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메이저와 대형국유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이나 러시아의 가스프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이들 기업의 주가흐름은 국제유가의 등락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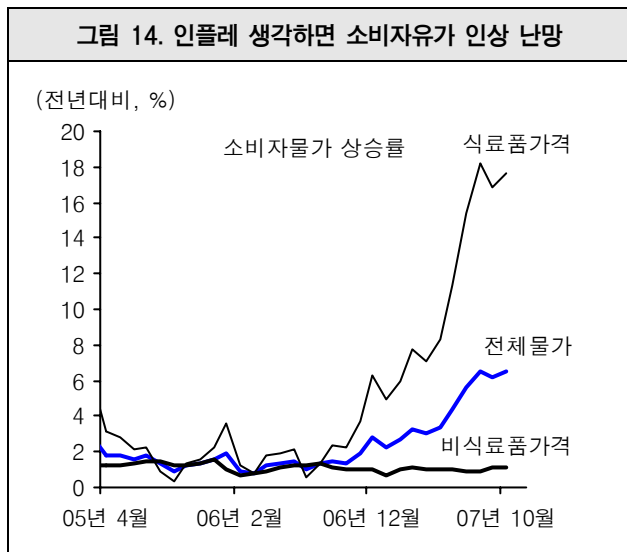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2008년의 국제평균 유가는 대부분의 관련 리서치센터 자료에 의하면 배럴당 65~75불 정도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소비가 타격을 입으면서 민간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기업측면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는 2003년부터 계속된 유가상승흐름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 유가수준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에너지 기업의 이익에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페트로차이나의 지역별 매출구성을 보면 98%가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고, 국유기업 특성상 유가상승에 맞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며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익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유가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다 결국 10% 일괄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는데 향후 식품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하면 특히나 유가상승의 소비자 전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림 14).



자료: Bloomberg

**3-2. 2008년 중국 증시는 업종위주의 접근 유효**

정부의 소비자 유가개입은 결국 페트로차이나 등 에너지 기업의 주가상승 모멘텀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노펙의 경우 원유가 상승에 따른 정제부분의 마진압박 등이 점차 심해질 수 있는 점도 에너지 업종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정부의 소비자 유가 인상제한으로 시노펙은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타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익 개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은행업종의 2008년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국의 은행대출 통제수준이 높아질 전망이어서 은행의 이익마진 핵심수단인 대출확대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주요 대형 국영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년 1회에서 분기 1회 보고서 제출로 늘이는 등 긴축 고삐를 늘이고 있어 증시를 주도하는 은행권 기업의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권의 이익성장은 향후 M&A를 비롯한 해외투자 부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추어 공상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해외지점 개 설을 통한 수익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현지은행의 M&A 및 지분확보에 경주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신용위기로 지분확보가 용이해진 부분이 있어 향후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대출제한이라는 위기상황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있다 (표 4).

**표 4. 2007년 은행권의 해외투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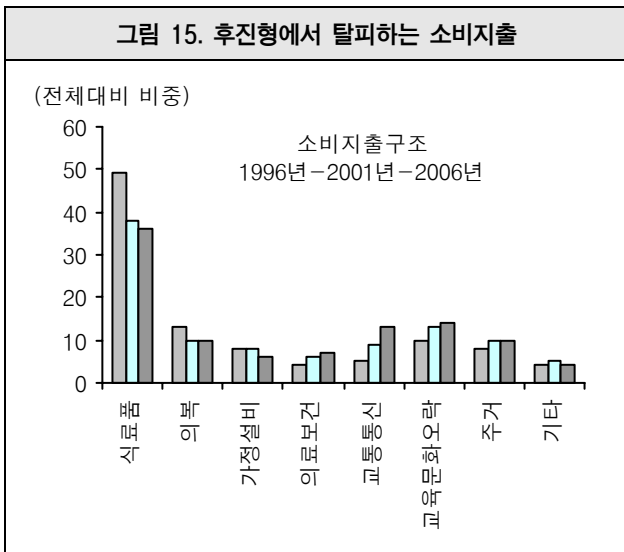
투자주체	투자국	투자대상	비고
공상은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	20%인수
중신증권	미국	베어스턴스	자본제휴
중국, 건설, 공상은행	싱가폴 (테마섹)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7%지분 공동인수 가능성

자료: 각 언론사 인용

결국 2008년은 중국 증시 투자의 포인트를 지수에서 업종 및 종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페트로차이나의 지수왜곡 가능성과 은행업종의 불투명성을 감안하면 내년 상해 지수는 큰 폭의 상승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업종 및 종목으로 접근하면 의외로 긍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소비측면이 그렇다. 중국의 소비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금 증가율과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사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지출 구조도 식료품 위주의 후진형에서 통신, 교육, 문화오락 지출이 늘고 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활양식도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소매업, 유통업, 전기전자 업종의 혜택이 예상된다 (그림 1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관광업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관광객의 급증에 이어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중국인들의 여행도 보편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는 점은 분명 관광산업 특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도시는 올림픽 이후 유람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디즈니랜드 건설을 추진중인 상하이, 유럽풍 테마파크 건설 중인 항저우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판매되는 중국펀드의 수는 지난 2년동안 급속히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종 대표주 펀드나 소비재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펀드 역시 존재하고 있다. 올해에는 앞서 언급한 업종선별 위주의 펀드도 등장할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2008년 지수밴드는 4800~6000**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2008년에도 두 자리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중국만한 투자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정부당국의 증시영향력이 여전히 큰 점과 정부당국의 증시속도 조절 의지 또한 강력한 점으로 미루어 2008년은 중국 증시가 소모된 에너지 확충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수에 대한 에너지와 은행업종의 비중이 높은 점과 두 업종의 내년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 2년처럼 지수의 급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현 지지선인 4800포인트와 전고점인 60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비교적 탄탄할 것으로 보여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후광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홍콩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투자의 방향을 지수보다는 업종 중심의 펀드 투자로 맞춘다면 2008년에도 알찬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아래 지점은 1588-2323 / 1544-1544 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Fn Honors 서울지역**

강남대로, 강서, 강남구청, 구로디지털, 구의, 대치(도곡역셀 브랜치 포함), 도곡, 명동, 명일동, 목동 반포, 방배, 보라매, 삼성타운, 삼성동, 상계, 서교, 서초, 송파(올림픽 브랜치 포함), 수유, 신사 압구정(압구정 브랜치 포함), 여의도, 연신내, 영등포, 영업부, 잠실, 제기동, 종로, 종합운동장, 천호 태평로(마포 브랜치 포함)

**Fn Honors 경기지역**

과천, 미금역, 부천, 부평, 분당, 수원, 수지(죽전 브랜치 포함), 안산, 영통, 일산, 인천, 평촌

**Fn Honors 충청·호남**

광주, 둔산, 서광주(목포 브랜치), 순천, 익산, 전주, 천안, 청주

**Fn Honors 영남지역**

거제, 경주, 구미, 김해, 대구, 대구서, 대구중앙, 동래, 마산, 부산(범일동 브랜치 포함), 부산중앙, 상인, 울산 지산, 진주, 창원, 포항, 해운대

**Fn Honors 강원지역**

강릉, 원주(춘천 브랜치 포함)

**Fn Honors 제주지역**

제주

<b>서울지역</b>	
Fn Honors 청담	(02)2056-2000
Fn Honors 테헤란	(02)3459-7900
Fn Honors 호텔신라	(02)2250-7979
<b>경기지역</b>	
Fn Honors 정지역	(031)785-8000
<b>영남지역</b>	
Fn Honors 안동	(054)850-0200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911-0900